



2018년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(제3자)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

2018. 1.



충청남도경제진흥원
ChungcheongNam-Do Economic Promotion Agency

2018년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(3자)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

1. 과업명 : 2018년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(3자) 컨설팅

2. 추진배경

-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이며 수출자 또한 발급된 확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
 - 협력업체는 FTA로 인한 직접혜택은 없는 원청업체의 과도한 정보 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복잡한 서류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
 - 수출자는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사후검증시 추징금과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의 피해 우려

3. 과업개요

- (사업목적)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과 정합성 검토를 통해 협력사의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-협력사간 신뢰 제고를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
- (사업내용)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충남FTA활용지원센터가 원산지 확인서의 발급 지원과 기 발급된 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·확인
- (사업기간) 계약일로부터 ~ 2018. 12. 15.까지

4. 과업지시 내용

- (운영원칙) 관세법인의 확인자(FTA 전문가)가 원산지확인서 및 근거서류 검토·확인, 서명 후 충남FTA활용지원센터 명의의 확인결과서 발급
- (수행범위) 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, 신청 품목에 대한 원산지 확인결과서 서명
 - 원재료에 대한 HS코드 확인,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, 제조공정도·BOM 작성방법, 확인서 검증, 근거서류 보관 등 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
 - 잘못 발행된 확인서에 대한 원인분석, 비국내산 판정의 경우 원인 분석 및 국내산으로의 변경 가능성·방법 등 컨설팅

○ (목표물량) 65개사, 130건(품목수 기준) 품목 이내

- 업체별 일수는 3MD 이하로 제한
- 업체별 품목 수는 3개 이하로 제한
- 원산지확인서 검토결과서 발급 건당 88만원 수준

컨설팅(전담관세사 수행) 용역비 = 880,000원(부가세 포함)

* 동일 회사는 두 번째 품목부터 단가 하향 조정(건당 44만원 수준)

-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안되는 비역내산 품목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(건당 44만원 수준)의 비용을 반영

* 비역내산 품목의 검토보고서의 경우 1개사 1건만 인정

○ (사업진행 프로세스)



- (수요기업 발굴) 관세법인에서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FTA센터로 접수된 건은 관세법인에 인계
- (사전진단 및 지원승인) 관세법인은 업체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방문일수 등을 포함한 컨설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, 센터에서는 검토 후 지원 승인
- (수행결과보고) 업체별로 컨설팅이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센터에 결과보고서 제출, 센터에서는 최종검토 후 검토결과서에 센터장 직인 날인 후 관세법인(사본) 및 업체(원본)에 제공
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확인서 발급실적, 컨설팅 수행실적, 개선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와 업체별 컨설팅결과보고서를 FTA센터에 제출
- (비용지급) 매월 말일까지 관세법인이 제출한 업체별 컨설팅 완료 결과보고서 기준으로 센터는 익월 첫째주까지 관세법인에게 비용 지급
- (보안각서) 업체로부터 받은 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신뢰성 보장

5. 목표 및 기대효과

-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(충남FTA활용지원센터)이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·확인(확인서 발급)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
 - 협력사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, 이에 따라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 완화 기대
 - 아울러 발행되는 확인서에 대한 제3의 기관을 통한 검토, 확인으로 효율적 원산지 관리 가능
 -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능